

제11회

# 부산연극제



1993년 5월 31일 (월)

▶ 6월 21일 (월)

(오후 5시, 7시 30분)

시민회관 소강당

- 주최 : 부산직할시
- 주관 : 한국연극협회 부산지회
- 후원 : 한국예총부산지회 · 국제신문  
부산일보 · 부산매일신문 · KBS부산방송본부  
MBC부산문화방송 · 부산시교육위원회



# 동의보감



각색/이정허

이 은 성, 작  
이 정 허, 각색  
손 기 룡, 연출

## ■ 각색자의 말

天眞의 못 성령들을 위하여

이 정 허

나는 한때 대저 글이란 '코딱지 같은 것'이라고 치부한 적이 있었다.

우리가 숨을 쉬고 뺄 때, 대기 속의 먼지와 허파속의 열기가 맞닥뜨려서 딱지를 엉겨붙게 하듯이, 글이란 대체로 우주에 미나해 있는 '정신의 바다'에 떠다니던 몇 톨의 티끌이 호흡을 통해 내 뇌수의 한 자락에 끼이게 된 것을 종이폭에 어기지게 긁어놓은 것 짬으로 생각했다.

말은, 숨결과 함께 들이마실 수도 흘러버릴 수도 있는 콧물처럼 유기체의 몸체에서 떨어져 나오기 전, 생명현상의 자연스런 한가닥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지만, 글이란 아무래도 딱지처럼 이미 토막치고 잘려 버린 '정신의 때요, 비듬 같은 것'이라는 사념에 사로잡혀 괜히 혼자 역해 있고는 했던 것이다.

그 때, 비듬 딱지를 누렁지 굵듯이 긁어 모아 그럴 듯이 장정하고 검은 찍어 '내 글' '내 말씀'입네 산지사방 외고 다니면서 사기치고 장사하는..... 그래서 그 훔날리는 비듬가루 때문에 온 세상 '천진의 못 성령'들이 얼마나 얼이 뿔히고 주머니를 털렸을까.

나 혼자 모골이 송연할 지경이다.

한 편의 연극 속에서 이제 또 그 비듬을 긁어 모우기 위해 소설 '동의보감'을 각색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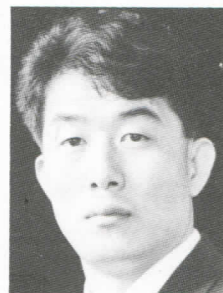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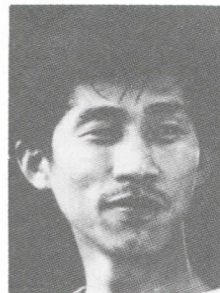
끈끈하고 냉철한 사제지간인 유의태와 허준을 만나기 위해서.

캐스트



유의태/이 정 허

허준/권 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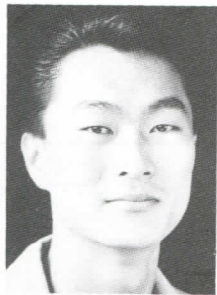
안광익/김 상 훈

삼적대사/  
이 재 용

성대감·환자/  
김 종 훈

도지/김 승 운

영달/최 성 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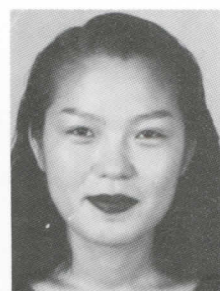


격쇠/손 민

오씨/신 정 연

다회/강 정 임

손씨/문 지 숙



상화·돌석/  
성 낙 경

노모/장 해 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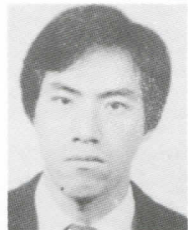
성대감 부인/  
김 기 양

만석·선비/  
박 병 권

성대감딸/  
이 나 영



제작/박기찬 연출/손기룡 음악/박철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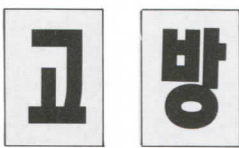


효과/김미영 분장/손서운 진행/김태조 소도구/오화정

무대미술 : 손민영  
 효과 : 김준희  
 미술 : 박미수  
 미술 : 채윤미  
 미술 : 김광보  
 조명 : 김광보

■ 공연보

회수	공연일자	공연명	장소	작가	연출
	88. 11. 1	창단			
1	89. 5. 2~5. 4	만다라	시민회관 소강당	김성동	이성규
2	89. 9.22~9.24	돈 (모노드라마)	카톨릭센터	최송림	김성노
	89.12.29~12.31	만다라	"	김성동	이기원
	90. 4. 4~4. 6	"	울산대강당	"	"
3	90.12.14~12.17	카사블랑카여 다시 한번	카톨릭센터	우디알렌	이기원
	91. 1. 5~1. 7	"	"	"	"
4	91.11. 9~11.11	원효대사 (뮤지컬)	시민회관 대극장	이정허	이기원
	92. 1. 8~1.11	"	"	"	"
	92. 4.28~4.30	감마선은 달무리 얼룩진 금잔화에...	늘원소극장	폴진텔	김인덕
	92. 5.20~5.22	로젤 (모노드라마)	"	하라터플러	김지숙
5	92. 6.26~6.30	동의보감	시민회관 소강당	이은성	손기룡
	92. 7.20~7.21	"	창원 K B S 홀	"	"
6	92.12. 1~12.31	카사블랑카여 다시 한번	S A Y 극장	우디알렌	이기원



고가구 · 서양화 · 동양화 · 다기 전문  
 <부산역 지하상가> TEL. 465-3553

富貴榮華 幸福의 象徴  
**청기와예식장**  
 부산시 동래구 수안동 로타리 (한국투자신탁 옆)  
 ☎ 555-2000, 553-1001~3

**청룡건설**